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

—순경음 ‘ingga’의 경우*

한영균**

I. 머릿말

1. 1. 한 언어가 보여주는 형태음소적 교체에서의 음운현상에 대한 기술은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1) 어간의 형태 분석
- 2) 어미의 형태 분석
- 3)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의 규칙화¹⁾

여기서 3)의 작업은 1), 2)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들 과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선후관계의 선을 분명히 긋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1), 2), 3)의 작업은 선후관계를 갖는다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도 없지 않다.

그런데 형태음소적 교체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 중에는 ‘순수한 음운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이들 음운론적 예외의 처리가 또한 1), 2), 3)의 작업 과정에서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1970년대 국어 음운론 연구의 주된 경향 중의 하나는 바로 ‘순수한

* 본고의 요지는 1985년 5월 수원 경기대 학교에서 열린 제 28회 전국 국어 국문학 연구 발표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국어연구소

1) 복합어의 경우는 double-base의 결합이지만, 여기, 우리가 다루려는 범주가 활용이므로 그것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대표로 삼았다.

‘음운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 존재들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추구였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태도가 있었다.

하나는 3)의 과정에서 음운규칙에는 보다 상위의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제약들을 정밀하게 기술함으로써 음운규칙에 있어서의 예외의 폭을 줄이려 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1), 2)의 처리를 보다 추상화함으로써 규칙을 간결화하고, 또 예외의 폭을 줄이려 한 것이었다²⁾(송철의 1982).

1. 2. 후자의 접근방법을 취했던 글들이 즐겨 다루어 온 주제의 하나로 전통문법에서 불규칙 활용이라고 불렸던 현상의 규칙화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의가 활발했던 것은 이른바 ‘ㅂ, ㅅ, ㄷ’불규칙 용언에 대한 것이었는데, 각인각색이라고 할만큼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안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김진우 1971·1976, Kim 1968·1973, 김차준 1971, 김완진 1972, Kim Renaud 1973·1974, Cook 1973, 이병전 1976, Sohn 1977, 김수곤 1977, Moon 1982 등).

이를 연구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취하면서도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 준다. 그것은 통시적 음운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형태음소적 교체에서의 특이성을 모두 음운부의 규칙으로 설명하려 했고, 그 결과 음운부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³⁾

2) 전자의 경우 국용, 활용, 파생 등의 문법 범주가 형태음소적 교체에서의 음운현상에 대해 일종의 제약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자음군 단순화, 중화, 단모음화 등의 음운현상에서는 체언과 용언이라는 형태론적 범주가 절속히 팬데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다(이병준 1975). 그런데 이러한 음운현상들은 모두 어간 형태소의 활동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앞으로 논의한 ‘불규칙 활용’의 문제는 바로 용언이라는 범주에 속해되는 것인 바, 용언의 비자립성이라는 국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 좀더 범위를 좁혀서 본다면 ‘ㅂ’, ‘ㅅ’ 불규칙 용언들이 통사적 음운변화가 개재한 경우에 속한다. $\beta > w$, $z > \phi$ 라는 통사적 변화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ㄷ’ 범적의 경우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15세기의 문헌 자료에서 이미 현대국어와 동일한 음소교체를 보이는 점에서 ‘ㅂ, ㅅ’ 불규칙 용언과 차이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ㅂ’불규칙 용언이나 ‘ㅅ’불규칙 용언이 나타나게 된 것은 $\beta > w$ ‘z > φ’로 공식화되는 음운변화의 적용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운, 더워서<暑>’ ‘지어, 지어서<作>’ 등의 경우에는 ‘ $\beta > w$ ’ ‘z > φ’라는 변화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지만, ‘덥고, 덥더라, 덥지’, ‘짓고, 짓더라, 짓지’ 등의 예에서는 ‘ $\beta > w$ ’ ‘z > φ’라는 음운변화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p ~ w’ ‘t ~ φ’의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 즉 (C_1V)^a C_2 —라는 어간 구조를 갖는 용언의 어간말 자음 C_2 가 음운변화로 인해 음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 이들 불규칙 용언의 특이한 형태음소적 교체의 유인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음운변화가 어휘부(형태소)의 구조를 바꾸어 놓은 데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 용언들이 보여주는 음운론적 예외성은 언어변화에서의 음운부와 어휘부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적판에 맞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1.3. 앞에서 지적한 대로 ‘ㅂ’ 불규칙 용언이 시현하는 음운론적 예외성은 ‘崩’의 동시적 변화에 적용되는 ‘ $\beta > w$ ’라는 일반적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즉 ‘더운, 더워서’의 경우에는 ‘ $\beta > w$ ’라는 변화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덥고, 덥더라, 덥지’ 등과 같은 예에 대해서는 이 ‘ $\beta > w$ ’ 공식의 적용이 불가능했던 까닭에 ‘p ~ w’의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에, {暑}를 의미하는 한 단어의 활용형인 ‘더운, 더워서’와 ‘덥더라, 덥지’ 등에 대하여, 어떻게 ‘ $\beta > w$ ’라는 음운 변화가 선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시된다. ‘ β ’가

4) 김차균(1971)에 이와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운, 더워서’와 ‘덥고, 덥더라, 덥지’ 등을 하나의 기저형에서 도출하기 위해 추상적 자음을 설정하고 있는 점은 여타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3장 참조.

음소로 존재하면 시기—바꾸어 말하면 {暑}를 의미하는 단어의 기저형이 ‘덥—’이면 시기—에 ‘ $\beta>w$ ’라는 음운변화가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동일 기저형을 갖는 동사의 활용형이 ‘ $\beta>w$ ’ 또는 ‘ $\beta>p$ ’라는 변화를 겪을 수 있었는가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만약 {暑}를 의미하는 단어의 기저형에 직접 ‘ $\beta>w$ ’라는 변화가 적용되었다면 ‘덥고, 덥더라’ 등의 형태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음운변화가 어떤 층위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데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목적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ㅂ’ 불규칙 활용이라는 특이한 형태·음소적 교체를 가져온 순경음 ‘崩’의 변화를 통해 동시적 음운변화는 과연 어떤 언어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밝히고, 하나의 음운변화($\beta>w$ 라는)가 종료된 시점에서 그 변화의 영향을 입은 어휘부는 어떤 재구조화 과정을 보여주는가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중세어형과 중세어의 음운규칙의 적용 양상을 검토하면서, 그를 통해 ‘ $\beta>w$ ’라는 음운변화의 층위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여기서는 음운규칙의 적용 양상이 갖는 의미가 중시된다. 아울러 ‘ㅂ’ 불규칙 용언이 현대국어에서 음운론적 예외성을 갖게 된 원인도 검토될 것이다. 이는 바로 동시적 음운변화가 어휘부의 재구조화를 가져오는 양상에 대한 한 고찰이 된다.

3장에서는 ‘ㅂ’ 불규칙 용언들이 보여주는 ‘음운론적 예외성’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검토해 본다. 먼저 지금까지 생성음운론의 방법론을 통해 ‘ㅂ’ 불규칙 용언을 다루어 왔던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자나름의 ‘ㅂ’ 불규칙 용언 기술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아울러 기저 이형태의 개념을 확립하고, 필자의 기술 방법이 가지는 장점을 밝힌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남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맺게 될 것이다.

II. 음운변화의 층위

2. 1.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소위 ‘ㅂ’ 불규칙 용언에 속하는 것들은 후기 중세어 단계에서는 순경음 ‘崩’을 가졌던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음소배열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규칙적인 활용을 보인다. 우선 다음에 ‘ㅂ’ 불규칙 용언의 중세어형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A	B
(1)	돌고	도방
	..고	..방
(2)	꿈거늘	교본
	..거늘	..본
(3)	쉽더	쉬본
	..더	..본
(4)	침거든	치벼
	..거든	..벼
	밉고	미본
	..고	..본

위의 예는 중세국어 동사 어간의 성조에 따라 나누어 본 것인데, (1)은 유통적 상성 어간을 갖는 것이며 (2)는 고정적 상성 어간을 (3)은 거성 어간을 (4)는 평성 어간을 갖는 예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간의 성조와는 관계없이 모두 ‘ㅂ~崩’의 교체를 보인다. 이는 중세국어에서의 ‘ㅂ~崩’ 교체가 성조에 의한 음운현상이 아님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⁵⁾

2. 2. 그러면 2.1의 예들이 보여주는 ‘ㅂ~崩’의 교체를 지배하는 규칙은 무엇인가?

A계열과 B계열에서의 ‘ㅂ~崩’의 교체는 ‘중화’라는 중세어의 음운

5) 이상역(1979)에서는 중세국어에서도 움장이 음운론적 기능을 가졌다고 전제한 후, 정연찬(1963)과 Kim-Renaud(1973)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어사의 ‘ㅂ~崩’ 교체가 움장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

현상을 바탕으로 쉽게 규칙화할 수 있다. 이기문(1963, 197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후기 중세어 단계에서는 ‘ㅂ, ㅍ, ㅎ’ 등이 모두 음절말 위치에서 ‘ㅂ’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결국 A계열에서의 ‘ㅂ’은 기저의 ‘ㅎ’이 자음 앞에서 중화규칙의 적용으로 실현된 ‘음성형’인 것이다, 이를 규칙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규칙 1. / β / → [p] / ____ C⁶⁾

여기서 〈규칙 1〉의 성격을 좀더 밝혀두기로 하자. 이 규칙은 일반적으로 중화규칙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몇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규칙 1〉은 중세국어의 음소 연결 제약(phonotactic constraint)에 의한 필수규칙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세어에서 순경음 ‘ㅂ’의 출현 환경이 모음 앞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규칙은 형태소 구조 제약(morpheme structure condition)을 반영하는 규칙으로, 이승재(1982)의 지적대로 형태소 경계 표지가 불필요한 규칙이다. 이러한 사실은 형태소 구조 제약의 적용 범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이 규칙의 적용 양상과 함께 다음에 논의할 ‘ $\beta > w$ ’라는 통시적 음운변화의 층위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에는 이미 ‘[β]~[w]’의 수의적인 교체가 있었다. (드분)-○○드외-〈化〉, 이불-○○이울-〈萎〉). 물론 이러한 어간 형태소에서의 교체는 이기문(1963 : 99~124)의 지적대로 문헌의 차이에서 나타나

-
- 6) 이 경우 중화의 환경으로 어말의 경우 즉 #가 추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세어에서 자립어로서 어말에 ‘ㅎ’을 가지는 어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규칙에 #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 7) 음운규칙의 적용 양상은 그 규칙을 지배하는 언어학적 유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음운규칙이 그 언어의 구조적 제약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 규칙은 필수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구조적인 제약과 무관한 것이라면 수의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예는 동일한 문현의 같은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이므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進上호수보니 보물 주수오시고(月釋序 13a)

김완진(1974 : 110)의 지적대로 이러한 표기법의 차이는 바로 ‘발음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15세기 당시 표면 음성형에서의 [β]와 [w]는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수의적인 교체는 기저 음소가 /β/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즉 기저의 /w/가 [β]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 현상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규칙 2. /β/ → [w] / ____ V(수의적)⁸⁾

이렇게 본다면 기저 음소 /β/의 음성적 실현을 지배하는 음운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존재했다고 할 것이다.

규칙 1. /β/ → [p] / ____ C(필수적)

규칙 2. /β/ → [w] / ____ V(수의적)

이 두 규칙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두 규칙은 그 환경에서 배타적 분포를 보인다. 즉 자음어미 앞에서는 <규칙 1>이 모음어미 앞에서는 <규칙 2>가 적용되는 것이다.

둘째. 이 두 규칙은 /β/가 음소로 설정될 수 있는 시기에서만 음운론적 의미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β/가 기저음으로 설정될 수 없는

8) <규칙 1>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환경의 앞부분은 이미 ‘봉’의 분포에서 제약되므로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는다. ‘봉’의 출현 환경에 대해서는 이기문(1972) 참조.

경우 (' $\beta > w$ '라는 음운변화가 종결된 이후)에는 두 규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3.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대국어 'ㅂ' 불규칙 용언이 생겨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崩' 즉 / β / 가 음소로 존재하면 시기에는 ' $\beta \rightarrow p$ '라는 규칙과 ' $\beta \rightarrow w$ '라는 규칙은 자기 음소 / β /에 적용되어 동일한 기저 자음 / β /를 [p]와 [w]로 실현되게 하는 음운규칙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저형에 어간말 자음으로 / β /를 가지는 용언들은 음운론적으로 설명되는 이형태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 β /가 음소로서의 자격을 잃게되면 ' $\beta \rightarrow p$ '라는 규칙과 ' $\beta \rightarrow w$ '라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두 음성형 [p]와 [w]는 서로를 이어 주던 고리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p]와 [w]는 음운론적으로 무관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 β /가 기저 음소로 존재하면 시기에는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형태를 가졌던 용언들도 이 시기에 이르면 그러한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화자들은 '의미'와 '기능'을 바탕으로 형태소를 분석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에서 실현되는 [p]와 [w]가 같은 형태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에서 실현되는 [p]와 [w]는 음운론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형태 음소적 교체를 보이게 된다.

결국 'ㅂ' 불규칙 용언들이 형태음소적 교체에서 음운론적 예외성을 보이게 된 것은 기저음소 / β /에 ' $\beta \rightarrow p$ ' ' $\beta \rightarrow w$ '라는 규칙이 각각 적용되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려 / β /가 음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 $\beta > w$ '라는 음운변화는 과연 어떤 층위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기저 음소 / β /에 ' $\beta \rightarrow w$ '라는 규칙이 직접 적용된다면 ' $\beta \rightarrow p$ '라는 규칙은 공전하게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현대국어의 'ㅂ' 불규칙 용언은 생겨날 수 없었을 터인데, 사실

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즉 ‘덥지, 덥더라’ 등에서는 ‘ $\beta > w$ ’의 변화를 겪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4. ‘ $\beta > w$ ’라는 통시적 음운변화는 ‘ $\beta \rightarrow w$ ’라는 공시적 음운규칙의 영역이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칙의 발생 시기에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고 따라서 수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 $\beta \rightarrow w$ ’라는 규칙이, 점차 그 적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표면 음성형에서 [β]의 실현을 허용하지 않는 필수적인 규칙이 되었을 때, ‘ $\beta > w$ ’라는 변화가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⁹⁾ 결국 ‘ $\beta > w$ ’라는 음운변화의 층위는 ‘ $\beta \rightarrow w$ ’라는 규칙의 층위와 그 확대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 $\beta \rightarrow w$ ’ 규칙의 층위를 알아보자. 국어의 용언은 비자립형태소이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이 음성적인 실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미와의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형태론적 과정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음운규칙 적용의 제1단계인 셀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1단계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은 형태——즉 어미와 어간의 통합이라는 형태론적 과정을 거친 형태——에 제2단계의 음운규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른바 표면음성형의 수의적 교체를 지배하는 음운규칙이다. 결국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음운규칙은 두 단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어간과 어미의 통합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간과 어미의 통합을 거친 이후의 층위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 $\beta \rightarrow w$ ’라는 규칙은 바로 이 제2단계에 속하는 음운규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초에는 표면음성형의 수의적 교체를 지배하는 규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 $\beta \rightarrow w$ ’ 규칙은 기저의 음소 / β /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

9) 물론 ‘ $\beta \rightarrow w$ ’ 규칙의 확대는 김완진(1974)에서 밝혀진 것처럼 기저의 / β /가 어떤 형태소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런 계단계를 모두 거치고 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은 규칙이었다.

그런데 이 ' $\beta \rightarrow w$ ' 규칙은 단계적인 적용 대상의 확장을 통해서 ' $\beta > w$ '라는 음운변화를 완결하게 된다. 처음에는 수의적 규칙으로 어간 형태소의 내부에서만 적용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어간 형태소 안에서는 [β]의 음성적 실현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적인 필수규칙이 되고, 점차 그 필수적 적용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 $\beta \rightarrow w$ ' 규칙의 확대가 기저형에 /β/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소에 이르게 되면, 국어에서 /β/를 음소로 설정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른바 ' $\beta > w$ '라는 음운변화가 완료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 $\beta \rightarrow w$ ' 규칙의 확대는 그 적용 층위의 변동을 가져왔을 것인가? 이를 '덥고, 더비~더워'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β/가 기저음소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는 이들의 기저 어간형을 /təβ-/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 $\beta \rightarrow w$ '라는 규칙이 기저형에 직접 적용된다면, '—고' 같은 자음어미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 '*더우고' 대신에는 '*더고'와 같은 형태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음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 $\beta \rightarrow p$ '의 적용을 받은 '덥고, 덥더라, 덥지'와 같은 형태만이 실현된다. 이는 바로 ' $\beta \rightarrow w$ ' 규칙이 /təβ-/라는 기저형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규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 $\beta \rightarrow w$ ' 규칙이 수의적 교체를 지배하는 규칙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되고 나면 '더비'와 같은 형태는 음성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기저의 모든 /β/는 [p] 또는 [w]로 실현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처음부터 ' $\beta \rightarrow w$ ' 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던 '덥고, 덥지' 등의 형태는 여전히 그러한 표면 음성형을 유지한다. 이것은 ' $\beta \rightarrow w$ ' 규칙의 확대가 단순히 적용 대상의 확대일 뿐이지, 적용 층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규칙의 발생 초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간과 어미의 통합이라는 형태론적 과정을 거친

층위에서 그 적용 대상을 확대시켜 나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beta > w$ '라는 음운변화는 표면 음성형의 수의적 교체에서 비롯되어, 그 교체가 필수적으로 실현될 때 즉 기저의 / β /가 그대로 [β]로 실현되는 것이 없는 단계에 이르면 완료되는 것이며, 그 변화는 각개의 형태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단위를 이룬 이후의 층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국어의 'ㅂ' 불규칙 용언들이 '음운론적 예외성'을 갖게 된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이들 용언은 비자립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미와의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자립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 $\beta > w$ '라는 동시적 변화는 자립성을 획득한 이후의 층위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또한 ' $\beta \rightarrow p$ '라는 별개의 필수적 규칙이 존재했기에, ' $\beta > w$ '라는 동시적 음운변화가 완결된 이후에는 음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형태음소적 교체'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동시적 음운변화에 의해 생긴 'ㅂ' 불규칙 활용이라는 현상을 공시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III. 'ㅂ' 불규칙 활용의 공시적 기술

지금까지의 'ㅂ' 불규칙 활용에 대한 생성음운론적 연구는 그 수가 10여 편에 이르는데,¹⁰⁾ 그것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 자음은 규칙적인 활용을 보이는 것 (cf. 잡— : 잡고, 잡아서)과는 다르며, 그것이 일정한 음운론적 환경 속에서 [p] 또는 [w]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ㅂ' 불

10) 필자가 볼 수 있었던 글 중에서 'ㅂ' 불규칙 용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김수곤(1977), Moon(1982)뿐이며, 이외의 글들은 다른 불규칙 용언과 함께 다루거나 현대국어 음운론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규칙 용언의 어간말 자음도 규칙적인 활용을 보이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p/이며, 그것이 특정한 음운론적·형태론적 환경에서 [p], [w] 또는 ϕ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기왕의 논의가 활발했던 만큼 서로의 계안에 대한 비판도 여러 논문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나눈 두 접근 방법별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본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1. 추상적 기저형의 설정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 자음은 규칙적인 활용을 보이는 것들과는 다르며, 그것이 일정한 음운론적 환경 아래에서 [p] 또는 [w]로 실현된다고 보는 견해는 김진우(1971),¹¹⁾ 김차균(1971), Cook(1973), 이병건(1976)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이 제안한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 자음은 각각 다음과 같다.

김진우	김차균 ¹²⁾	Cook	이병건
/w/	/β/(ㅂ)	/wp/	/b/

이들의 주장은, 위와 같은 기저 음소들이 자음어미 앞에서는 [p]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w]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우선 김차균(1971)과 이병건(1976)은 새로운 기저음소 /β/ 와 /b/ 를 각각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 자음으로 추정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들은 ‘ㅅ’ 불규칙 용언과 ‘ㄷ’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도 각각 /δ(등), z(△) /, /d, z/ 라는 어간말 자음을 설정하고 있는데, 일부 어사들의 형태음소적 교체에서의 음운론적 예외성을 설명하기 위해 부당하게 기저 음소의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국어의 자음체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11) 이 글은 Kim(1968, 1973)과 같은 주제를 다룬 것으로 보이는데, 이병건(1976 : 127~31)에 의하면 김진우(1971)은 Kim(1968)을 수정한 Kim(1973)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Kim(1968, 1973)은 직접 참고할 기회가 없었기에 김진우(1971)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2) 김차균(1971)은 음성기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바, β, δ, z 등은 필자가 이해한대로의 표기이다.

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양자의 제안은 모두 국어가 유성·무성의 대립을 보이지 않는 언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세 개의 기저 유성 자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차균(1971)의 제안은 유성마찰음은 존재하는데 유성폐쇄음은 존재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자음체계를 인정하게 되며, 이병건(1976)의 제안은 표면형의 [b]와 기저의 /b/를 구분하여, 기저의 /b/만이 모음 사이에서 [w]로 실현된다고 설명함으로써 rule opacity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¹³⁾

김진우(1971)과 Cook(1973)의 제안은 둘 다 폐구조음원칙(principle of close articulation)이라는 국어 음운체계의 공모성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양자는 모두 국어의 형태소 구조 제약에 어긋나는 기저형을 인정하게 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 김진우(1971)은 off-glide /w/를 어간 말 ‘자음’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기저 음절구조에서 모음 뒤에 glide /w/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어의 일반적 음절구조와 상치된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Cook(1973)의 경우, 과연 /wp/라는 자음군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과 함께, 모음어미 앞에서 왜 /wp/의 /p/가 탈락하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더구나 중화규칙을 바탕으로 한 폐구조음원칙이라는 공모성의 일반화가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¹⁴⁾을 감안한다면, 양자의 주장은 그 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추상적 기저형의 설정을 통해서 ‘ㅂ’ 불규칙 용언의 규칙화를 시도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13) 이병건(1976)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김수곤(1977: 6~7) 및 Moon(1982: 394~5) 참조.

14) 현대국어의 중화규칙은 무성자음에만 적용되므로 /w/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w→p’라는 교체를 중화규칙에 바탕을 둔 폐구조음원칙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화규칙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이다. 이병건(1976: 128) 및 Moon(1982: 392~3) 참조.

3. 2. 규칙의 정밀화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 자음도 규칙적 활용을 보이는 용언의 어간말 자음과 같은 /p/이며, 이 기저의 /p/가 음장·sonority의 강도·원순성 차질의 중복 등의 환경 속에서 약화 또는 탈락에 이론다는 주장은 Kim-Renaud(1973), 김수곤(1977), Moon(1982) 등에 의해 대표된다.¹⁵⁾ 이들의 주장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에 이들 논문에서 제안된 어간말 /p/의 약화·탈락규칙을 세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 Kim-Renaud(1973)¹⁶⁾

$p \rightarrow w / [\dots V : \dots]$ 동사어간 [V...] 접미사

2) 김수곤(1977)

$p \rightarrow w / (CoV)_1 \left[\begin{smallmatrix} C \\ \text{not } \check{c} \end{smallmatrix} \right] V \dots$] 동사어간 + V 접미사

3) Moon(1982)

$\left[\begin{smallmatrix} -\text{syll} \\ +\text{lab} \\ -\text{nas} \end{smallmatrix} \right] \rightarrow \phi / V \left[\begin{smallmatrix} V \\ +\text{round} \end{smallmatrix} \right] \dots + V$

김수곤(1977)과 Moon(1982)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Kim-Renaud(1973)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었는데,¹⁷⁾ 이들의 논의는 대부분의 ‘ㅂ’ 불규칙 용언이 다음과 같은 수의적 교체형을 보인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15) 이 외에 김진우(1976), Sohn(1977), 이상억(1979) 등이 음장을 불규칙 용언의 p~w 교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음운론적 유인으로 파악한 경우에 속한다. 이들의 논의는 대개 Kim-Renaud(1973)의 논의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16) Kim-Renaud(1973: 212)의 원래 규칙은 자음의 음운론적 강도를 0~6의 7 단계로 나누고 규칙의 왼쪽 부분을 ‘strength n → strength n-4’로 표시하여 자음 강도의 약화(공명도의 동화)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ㅂ’ 불규칙 용언의 기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의 현상 ‘p~w’로 바꾸었다.

17) Kim-Renaud(1973) 분석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김수곤(1977: 7~10), Moon(1982: 396) 참조.

A		B
맵다	~	매울다
밉다	~	미울다
꼽다	~	고울다
덥다	~	더웁다
톱다	~	도울다
홍겁다	~	홍겨웁다
놀랍다	~	놀라울다
아름답다	~	아름다울다
탐스럽다	~	탐스러울다

위의 예들은 표면음성형에서 어간모음이 음장을 갖진 그렇지 않건 '-Vp~Vup' (cf. 맵—○매울—)의 수의적 교체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Vup' 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함으로써, 다음 절어인 경우나 (김수곤 1977), 어간말 자음 /p/ 앞에 두 모음이 연속되고, 그 중 하나가 원순모음인 경우 (Moon 1982),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말 자음 /p/의 약화·탈락을 보인다는 규칙화가 가능했던 것이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따르기 어렵다.

첫째, '-Vup' 형을 기저형으로 볼 때 '-Vp' 형이 음장을 가지는 경우 (cf. 꼽—, 톱—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 (맵—, 밉—등)로 나뉘는 까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음장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적 장모음화 (compensatory lengthening)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음장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방법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Kim-Renaud (1973)의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 존재들은 김수곤 (1977)이나 Moon (1982)의 접근방법을 통하더라도

18) 김수곤 (1977)과 Moon (1982)는 'ㅂ' 불규칙 용언의 '음운론적 예외성'을 규칙화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하고 있다. 이론바 '기술적 타당성'은 획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에서는 불규칙 용언들이 통시적 음운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간과하고 있다. 후술 참조.

예외적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¹⁹⁾

둘째로 다음 예들이 보여주는 수의적 교체는 김수곤(1977)이나 Moon(1982)의 규칙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음운론적 유인(Phonological Motivation)이 약한 것임을 보여준다.

A	B ²⁰⁾	C
돕다	~	도우고
돕겼다	~	도우겠네
돕지	~	도우지

이들 예에서 A계열과 C계열은 임의의 교체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²¹⁾ B계열의 활용형들은 김수곤(1977)이나 Moon(1982)의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도울—’을 기저형으로 보는 경우, 자음어미 앞에서 기저의 어간말 자음 /p/가 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용형의 존재를 중시하는 입장에 선다면, 세 모음의 중복이 sonority의 강화를 가져와서 기저자음 /p/의 약화·탈락을 유발한다는 Kim-Renaud(1973), 김수곤(1977), Moon(1982)의 공통적인 논거가 약해진다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또다른 증거가 찾아지지 않는 한, ‘-Vup’형을 ‘ㅂ’ 불규칙 용언의 기저형으로 설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Vup’형이 ‘-Vp’형보다 새로운 형태로 인식된다는 점과, 문헌자료에서 ‘-Vup’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Vup’형에 대한

19) 이상억(1979)에서도 중세어 문헌자료와 현대국어 중앙어 자료를 대교하여 음장을 통해서도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 존재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외’로 다룰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20) 화자에 따라서는 B계열의 활용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이 흔히 사용되는 형태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21) 필자는 이들을 임의의 교체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C계열의 ‘도울—’이라는 형태는 ‘고울—, 미울—’과 같이 ‘Vup’라는 어간 형태를 가지는 바, 이는 ‘도우—, 고우—, 미우—’라는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형태와, ‘돕—, 립—, 꼽—’이라는 자음어미 앞에서의 어간 형태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에서 생긴 일종의 혼효형이다. 3.3 참조.

해석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²²⁾

김수곤(1977), Moon(1982)의 제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소위 불규칙 용언이라 불리우는 어사들이 지니는 공통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ㅅ’ 불규칙 용언과 ‘ㅂ’ 불규칙 용언들은 ‘z>ɸ’, ‘θ>w’라는 음운변화가 어간말 자음에 영향을 주어 생겨난 것인데, 이들 양자의 제안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다.

결국 규칙의 정밀화를 통해서 ‘ㅂ’ 불규칙 용언의 ‘음운론적 예외성’을 규칙화하려는 시도는 ‘기술적 타당성’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설명적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3. ‘ㅂ’ 불규칙 활용과 기저이형태

3. 3. 1. 현대국어의 ‘ㅂ’ 불규칙 용언은 다음과 같은 세 계열의 활용형을 가진다.

	A	B	C
(1) דווח—	דווח고	도와	도우니
덥—	덥고	더워	더운
(2) 꼽—	꼽고	고와	고운 ²³⁾
(3) 축—	축고	추워	추운
(4) 밉—	밉고	미워	미운
맵—	맵고	매워	매운

이들 ‘ㅂ’ 불규칙 용언이 시현하는 형태-음소적 교체에서의 ‘음운론적 예외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이 보여주는 교체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세 계

22) 필자는 이 ‘·Vup’ 형을 ‘·Vup’ 형과 ‘·Vu’ 형의 혼효형으로 본다. 전주 참조.

23) 화자에 따라서는 모음어미가 연결되는 경우 단모음화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합성어의 경우 분명히 음장을 유지한다. cf. 고운 물결나방, 고운 푸른 겹박이 부전나방 (이희승편 국어대사전 p. 249).

열의 활용형(표면음성형)에서의 어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들 대부분에서는 이 기초적인 작업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러한 작업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세 계열의 표면음성형에서 어간 부분을 분석해 내는 일은 그렇게 간단히 처리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 때의 어간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p~w’ 교체라는 현대국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음운현상을 상정했던 것이다.

A계열의 활용형에서는 어간 부분을 쉽게 분석해 낼 수 있다. 즉 ‘톱, 덥’ 등 [p] 까지가 어간부인 것이다. 그러나 B,C계열의 활용형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분석되지 않는다. 어간과 어미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음운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어간의 마지막 음소와 어미의 첫음소가 한 음절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어미가 ‘아/어’로 시작되는 경우인 B계열부터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때는 어미가 /a/ 또는 /ə/ 이므로, 어간의 마지막 음소는 [w]로 실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표면 음성형에서 실현되는 [w]가 기저의 /w/가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저 음소가 음운 규칙의 적용으로 [w]로 실현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3.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표면형의 [w]가 기저의 /w/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까닭은 첫째 국어의 형태소 중에서 /w/로 끝나는 것이 없고, 둘째 이 [w]를 기저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때 /tow-/, /təw-/와 같은 형태를 인정하게 되는바, 한음절 안에서 모음 뒤에 glide /w/가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제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표면의 [w]는 기저의 어떤 음소가 모종의 음운규칙의 적용으로 자질의 변화를 입어 실현된 음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기저에 어떤 음소를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w/ 는 Chomsky(1968)의 대분류자질에 의하면 [-vocalic, -consonant]에 속한다. 그런데 국어에는 [+cons]가 [-cons]로 바뀌는 대분류자질 변경규칙은 없으므로, [w]는 [vocalic]자질을 가지는 모음이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모음 중에서 /w/로 바뀔 수 있는 것은 /o/, /u/ 밖에 없으므로, 기저의 음소는 /o/ 또는 /u/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C계열의 활용형은 모든 경우에 [u]를 보여 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B, C계열의 어간은 그 마지막 음소가 /u/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만약 B, C계열의 어간이 /CVu-/ 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왜 반드시 [도와, 더워, 고와] 등으로만 실현되고 [*도우아, *더우어, *고우아] 등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오고	온니	와서	*오아서
배우고	배우니	배워서	*배우어서
싸우고	싸우니	싸워서	*싸우어서
깨우고	깨우니	깨워서	*깨우어서

위의 예들은 어간이 ‘오, 우’로 끝나는 것들인데,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필수적인 glide화를 겪음을 보여준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규칙 3. $\left\{ \begin{matrix} u \\ o \end{matrix} \right\} \rightarrow w / (C:V) \quad []_{\text{동사어간} + a/\partial X} \text{어미}$
(X는 임의의 요소)

결국 [도와, 더워, 고와] 등이 [*도우아, *더우어, *고우아] 등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이들 예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닌 것이다. 이는 어간 형태소의 마지막 음절이 ‘오, 우’인 동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음운규칙에 의한 현대국어의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결국 B, C

계열의 활용에서의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형태를 /CVu-/로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런 난점이 없는 것이다.

3. 3. 2. 이런 분석 결과에 의한다면, 이론바 「ㅂ」 불규칙 용언이 보여 주는 형태음소적 교체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논의해왔던 'p~w' 교체가 아니라 'p~u' 교체임을 알 수 있다.²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CVp-'와 'CVu-'의 교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이러한 교체를 음운규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CVp-'와 'CVu-'의 교체를 음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p→u' 또는 'u→p'와 같은 음소의 교체, 바꾸어 말하면 음운자질의 변경을 상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p→u'의 교체를 인정하는 경우 [−voc, +cons]→[+voc, −cons]라는 자질의 변경을, 'u→p'의 교체를 인정하는 경우 [+voc, −cons]→[−voc, +cons]라는 자질 변경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음운규칙으로 이러한 자질변경규칙은 인정할 수 없다. 결국 「ㅂ」 불규칙 용언이 보여주는 형태음소적 교체는 음운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CVp-' 형과 'CVu-' 형이 각각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으로 어휘항목부(lexical base)에 등재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 두 형태는 각각의 실현환경이 다를뿐,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는 바, 하나의 어휘항목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 'CVp-' 형과 'CVu-' 형은 이형태(allomorph)의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의미와 기능이 같으면서,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서 음성실현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의

24) 결국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공시적 교체의 실상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는 ' $\beta > w$ '라는 통시적 변화에 이끌린 결론이거나와, 또한 앞에서 논의한 바 기본적 작업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출현 환경이 음운론적 조건에 따르지만, 그 교체는 현대국어의 음운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음성실현형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를 기저형(basic morph)으로 상정하고, 일련의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음성실현형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방법이었는데, 이들의 교체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현대국어의 음운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의 기저형(basic morph)에서 두 음성실현형을 도출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기저형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 즉 공시적 음운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음성실현형의 교체를 보이는 어휘항목이나 형태소는, 어휘항목부(lexical base)에 각각의 이형태가 모두 등재된다고 봄으로써 이들 ‘ㅂ’ 불규칙 용언의 ‘p~u’ 교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표현하면, 이들 ‘ㅂ’ 불규칙 용언은 하나의 어휘항목으로 어휘항목부에 등재되지만, 각각의 항목이 ‘CVp’ 와 ‘CVu’라는 기저 어간 이형태(underlying stem allomorph)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²⁵⁾

이때의 어간이형태는 쌍형어(doublet)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쌍형어는 각각의 형태가 개별 어휘항목으로 어휘항목부에 등재되고, 따라서 그 음성실현에 있어 분포상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어간이형태는 하나의 어휘항목 속에 각각의 출현환경이 명시되어 등재 되므로 서로 배타적 분포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3. 3. 3. 이러한 기술방법을 취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불규칙 용언에 대한 연구에서 포착할 수 없었던 중요한 사실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즉 형태음소적 교체에서 음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성이 음운변화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 음운변화의 환경이 유사할 경우에 그러

25) 이러한 기저 이형태는 어간 형태소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주격조사 {이／가}의 교체 역시 이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가}의 교체도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만, 현대국어의 음운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교체를 보이는 어사들은 모두 기저에 어간이형태를 가지며, 또한 그 어간이형태의 출현환경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ㅂ’ 불규칙 용언과 ‘ㅅ’ 불규칙 용언이 음운론적으로 아무런 관련을 가지지 않는 데에도 유사한 교체를 보이는 것은, 이들 용언이 각각 ‘ $\beta > w$ ’, ‘ $z > \phi$ ’라는 음운변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 변화의 환경이 같았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 $\beta > w$ ’나 ‘ $z > \phi$ ’와 같이 변화의 시기가 비슷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변화의 환경이 유사하다면, 현대국어에서는 같은 교체 방식을 보인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한 예로서 ‘ㄷ’ 불규칙 용언의 경우와 ‘ㅅ, ㅂ’ 불규칙 용언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전자는 15세기 이전의 어느 단계에서 ‘ㄷ~ㄹ’의 교체가 일어났고, 후자는 15세기에 들어와서 음운변화를 겪은 것이지만, 이들은 모두 어간말 자음이 변화한 것이며 그 변화의 환경이 어미의 두음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짐으로해서, 현대국어에서는 동일한 양상의 형태음소적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IV. 납은 문제들

4. 0. 이상에서 우리는 ‘ $\beta > w$ ’라는 통시적 음운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제 우리가 얻어낸 결론을 요약하고, 그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4. 1. 우리는 먼저 ‘ㅂ’ 불규칙 용언이라고 지칭되는 일군의 어사에는 ‘ $\beta > w$ ’라는 음운변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봉’ 즉 / β / 가 기저음소로 존재하던 시기에 이들 어사는 기저 어간말 자음으로 / β /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 $\beta > w$ ’라는 음운변화가 기저형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이 때서 ‘ㅂ’을 유지한

‘덥지, 푹고’ 등의 형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가가 의문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 $\beta > w$ ’라는 음운변화가 어떤 층위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 문제의 초점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 $\beta > w$ ’라는 음운변화는 표면음성형의 수의적 교체에서 비롯되어 그 교체가 기저형에 / $\beta/$ 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소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에 이르면 완료되는 것이며, 그 변화는 각 형태소가 자립할 수 있는 단위를 이룬 이후의 층위에서 일어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현대국어의 ‘ㅂ’ 불규칙 용언이 생겨난 과정을 밝힐 수 있었는데, ‘음운변화가 각 형태소가 자립할 수 있는 단위를 이룬 이후의 층위에서 일어난다’는 결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우선 용언이나 어미와 같이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의 경우, 일정한 과정을 거쳐 자립성을 획득한 단위(용언의 활용형 등)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용언이 어미와 결합한 형태(활용형)의 경우, 그것을 하나의 언어단위로 인정하고 나름대로의 층위를 가진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 형태소의 결합형일뿐 별도의 층위를 이루는 언어단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활용형을 단순히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일뿐 별도의 층위를 이루는 언어단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 음운변화는 왜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데,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이 자립성을 획득한 단위는 공시적으로 음운규칙의 두 단계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데 (2.4. 참조), 용언의 활용형을 단순히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이라고 해서는 왜 음운규칙이 그렇게 나뉘는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각 형태소가 자립성을 획득한 형태를 하나의 언어단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몇 가지 의문점은 남는다. 우선 이들이 국어의 문법체계 안에서

어떤 층위에 속한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이들이 어휘항목부(lexicon)에 등재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데, 현재의 이론으로는 어휘항목부 이외에 이들을 등재할만한 층위가 없는 것이다. 둘째로, 이들이 어휘항목부가 아닌 별도의 층위를 이룬다고 할 때, 그 층위는 국어 문법체계 안에서 어디에 자리하는 것인가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어간과 활용어미와의 통합이라는 과정이 어휘부의 과정인가 아니면 통사적 결차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활용이 어휘부의 과정이라면 활용어미들이 지니고 있는 통사적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활용이 통사부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째서 활용이라는 범주에서의 음운현상이 두 단계로 나뉘어 나타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활용’이라는 범주의 특성이 국어의 문법체계를 바탕으로 재음미되어야 함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음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국어 문법의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형태론적, 통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2. 우리가 얻은 두번째 결론은, 이른바 ‘ㅂ’ 불규칙 활용은 현대국어의 음운규칙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며, 그 까닭은 소위 ‘ㅂ’ 불규칙 용언들이 ‘CVp’ 와 ‘CVu’라는 기저의 어간이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ㅂ’ 불규칙 용언들이 보여 주는 형태음소적 교체에서의 ‘음운론적 예외성’을 ‘어간이형태’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였는데,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견해를 분명히 하기로 하자.

어간이형태란 공시적 음운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음성실현형의 교체가 음운론적·형태론적 환경에 의해 지배될 때, 그러한 교체를 보이는 어휘항목이나 형태소가 가지는 이형태를 말한다.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비자동적 교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들 이형태가 모두 어휘 항목부에 등재된다고 보면, 그 등재되는

이형태는 각각의 실현환경이 명시되어 있어서 음성실현에서의 제약을 반영한다고 보는 점이다. 즉 ‘교체’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음성실현 형이 결정되는 것이다.

‘ㅂ’ 불규칙 용언의 음운론적 예외성을 어간이형태로 설명할 때의 어려움은,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이형태의 기저형을 ‘CVu-’로 하느냐 아니면 ‘CVw-’로 하느냐 하는 점이다. ‘CVu-’를 기저형으로 잡는 경우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아’ 형만을 취하는 경우(cf. 고와, 도와)를 설명하기 어렵다. 공시적으로 모음조화규칙을 인정하는 경우 어간말음이 /u/로 끝나면 일반적으로 ‘—어’형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대해서 glide화 이후에 모음조화 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cf. Moon 1982), ‘싸우—’, ‘배우—’의 경우에는 ‘싸워~싸와’, ‘배워~배와’와 같은 교체를 허용하는 반면, ‘도와’ ‘고와’ 등은 반드시 ‘—아’형만을 취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CVw-’를 기저이형태로 보기도 어렵다.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는 어간말에 /w/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⁶⁾

결국 이 문제는 모음조화규칙의 공시적 적용 영역과, 활용이라는 범주가 갖고 있는 형태론적 특성이 음운규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곽충구(1983), “체언어 간발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91.

김수곤(1977), “ㅂ—변칙동사류의 음운론적 의의”, 「언어」2.2, pp. 1~16.

26) 여기에 일반 화자의 어간 분석도 참고가 된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이 ‘ㅂ’ 불규칙 용언의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형으로 ‘CVu-’형을 등재하고 있다. 사실은 화자들이 ‘ㅂ’ 불규칙 용언이 ‘CVp-’형과 ‘CVu-’형의 두 이형태를 가진다고 인식하는 한 방증이 될 것이다.

- 김완진(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10, pp. 91~115.
- 김완진(1972a), “다시 $\beta > w$ 를 찾아서”, 「어학연구」 8. 1, pp. 51~6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완진(1972b),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 11, pp. 273~89.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김완진(1974), “음운변화와 음소의 분포—순경음 넝의 경우—”, 「진단학보」 38, pp. 107~20, 진단학회
- 김진우(1971), “소위 변격용언의 비변격성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8·9 합집 pp. 1~11, 한국언어문학회.
- 김진우(1976), “국어 음운론에 있어서의 모음 음장의 기능”, 「어문연구」 9, pp. 1~10,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 김차균(1971), “변칙용언연구”, 「한글」 147, pp. 83~118, 한글학회.
- 송철의(1977), 「파생어 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송철의(1982), “음운현상의 기술을 정밀화시킨 국어음운론 연구에 대하여”, 「한국학보」 27, pp. 2~19, 서울: 일지사.
- 송철의(1983),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pp. 47~72, 국어학회.
- 안병희(1959/*1979) 「15세기 국어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서울: 탐출판사.
- 이기문(1962), “중세국어의 특수어간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pp. 119~54, 진단학회
-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
-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서울: 탐출판사
- 이병건(1976), 「현대 한국어의 생생음운론」, 서울: 일지사.
- 이병근(1975), “음운균치과 비음운론적 제약”, 「국어학」 3, pp. 17~44, 국어학회.
- 이병근(1976),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pp. 1~28, 국어학회.
- 이병근(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서울: 탐출판사.
- 이병근(1981), “유음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어우름. 한글학회
- 이상억(1979), “성조와 음장”, 「어학연구」 15. 2, pp. 123~40,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승녕(1954), “순음고—특히 순경음 넝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논문

- 집(인문·사회과학)」1, pp. 40~76.
- 이승녕(1955), 「음운론연구」, 서울 : 민중서판.
- 이승녕(1957), “어간쌍형설의 제기”, 「서울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6, pp. 81~106.
- 이승녕(1961), 「국어 조어론고」, 서울 : 윤우문화사.
- 이승재(1982), “형태소 경계의 음운론적 기능에 대하여”, 「백영 정병우선생
환갑기념논총 I, 국어학연구」 pp. 176~87, 서울 : 신구문화사.
- 임홍빈(1983), “서구의 일반언어학 이론과 국어학의 발전”, 「정신문화연구」
통권 19 호,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연찬(1963),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의 성조에 대하여”, 「충남대 논문집」
3, 정연찬(1976) 재수록.
- 정연찬(1976), 「국어 성조에 관한 연구」, 서울 : 일조각.
- 조현숙(1985), 「경북방언의 운율체계연구—봉화지역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66,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현배(1955/1982), 「우리말본(고친판)」, 서울 : 정음사.
- 허웅(1965), 「개고신판 국어음운학」, 서울 : 정음사.
- 허웅(1975), 「우리옛말본 형태론」, 서울 : 샘문화사.
- Aronoff, Mark(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1. M.I.T. Press.
- Bauer, Laurie(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k, Eung-Do(1973), “Double-Consonant Base Verb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9. 2, pp. 264~73.
- Halle, Morris(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 Formation,” Lin-
guistic Inquiry 4. 1, pp. 3~16.
- Kim-Renaud, Y-K(1973),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Language
Research* 9. 2, pp. 206~25.
- Kim-Renaud, Y-K(1974),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
tation, Uni. of Hawaii.
- Kiparsky, Paul(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Foris Publications, Dord-
recht, Holland.
- Kissebith, Charles W. (1970), “The Treatment of Exceptions,” *Papers in
Linguistics* 2, pp. 44~58.
- Mohanan, K.P. (1982), *Lexical Phonology*, I.U.L.C.

Moon, Kyng-Hwan(1982), "Korean P-Irregular Verbs Revisited," *Linguistic Analysis* 13. 1.

Lieber, Rochelle(1982),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on*, I.U.L.C.